

주님의 회복 — 시온을 건축하는 것

성경: 시 48:2, 11-12, 20:2, 50:2, 53:6상, 87:2, 계 2:7, 11, 17, 26-28, 3:5, 12, 20-21

I. 시온은 다윗왕의 성이자(삼하 5:7) 예루살렘성의 중심으로, 그곳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건축되었다(시 9:11, 2:6, 74:2, 76:2하, 125:1, 135:21, 사 8:18).

- A. 예루살렘은 교회를 나타내는 예표이고, 시온은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을 나타내는 예표이다.
1. 시온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이다 — 시 48:2, 50:2.
 2.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인 시온은 이기는 이들을 나타내는 예표이며, 그들은 교회의 고봉, 중심, 높아짐, 강화됨, 풍성함, 아름다움, 실재이다 — 시 48:2, 11-12, 20:2, 53:6상, 87:2.
 3. 시온산은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이다 — 시 24:1, 3, 7-10.
- B. 시온인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고,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몸의 건축을 완결하여, 완결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처인 최종적인 지성소를 이끌어 온다 — 계 21:16, 비교 출 26:2-8, 왕상 6:20.
- C. 교회생활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며, 교회생활 안에는 반드시 오늘날의 시온인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 — 롬 12:4-5, 엡 4:16, 계 2:7, 3:12.
1. 이것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취하시는 절차라는 것을 계시한다.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이끈다.
 2.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회복의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방식으로 많은 지방에 교회들을 산출하시는 것이 아니라, 그분의 유기체인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— 고전 12:27, 엡 4:16.

II.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.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다 — 계 14:1, 엡 4:16, 계 21:2, 9-10.

- A. 예루살렘의 특징들과 생명과 축복과 세위짐은 시온에서 온다 — 왕상 8:1, 시 51:18, 102:21, 128:5, 135:21, 사 41:27, 욥 3:17.
- B.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건축하고자 하시는 것은 시온, 곧 이기는 이들이다.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계시의 내재적인 실재이다. 확실히 우리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하며, 사도 바울이 지불했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— 계 2:7, 11, 17, 26-28, 3:5, 12, 20-21, 골 4:2, 빌 3:8-14.
- C. 우리가 활력화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기는 이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. 활력적인 것은 살아 계시고 활동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살아 있고 활동적이 되는 것이다.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움직이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기는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— 단 11:32, 히 3:12, 9:14, 비교 계 3:1.

- D.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은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소유하시기 위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이다 — 시 24:1, 3, 7-10, 단 2:34-35, 7:13-14, 율 3:11, 계 11:15, 19:13-14.
- E.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. 우리가 이기는 이들,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될 때, 이로 인하여 교회 시대인 이 시대가 마감될 것이고,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왕국 시대에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하시고 소유하시며 통치하실 것이다 — 계 19:7-9, 20:4, 6, 시 24:7-10.
- F.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은 연합된 영 안에 생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사는 이기는 이들의 생활을 계시한다.
1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이자 성경의 최고의 계시이며,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계시된다 — 엡 1:17, 22-23.
 2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이다. 연합된 영은 하나님의 거처, 하나님의 집, 오늘날의 뻔엘, 하늘의 문이자, 지성소 곧 언약궤로 예표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거처이다 — 엡 1:17, 2:22, 3:5, 16, 4:23, 5:18, 6:18, 창 28:12-17, 요 1:51, 히 9:3-4, 10:19-22.
 3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, 곧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가 그분의 많은 지체들 안에 복사되어, 온전하게 된 하나님-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이 된 것이다. 이러한 복사는 새롭게 하시는 영과 그들의 거듭난 영이 연합되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— 엡 4:1-6, 15-16, 20-24, 갈 2:20, 빌 1:19-21상, 4:11-13.
 4. 교회는 아름답게 하시고 신부를 준비하시는,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.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부, 곧 흠이나 결함이 없는 신부가 될 수 있다 — 엡 5:18, 26-27, 사 60:7, 19, 62:3, 출 28:2, 비교 시 27:4, 48:2, 50:2, 110:2-3, 7, 사 28:5, 60:21, 61:3.
 5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 안에서 승리하시는 분이 되시려면,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죽이시는 영을 체험해야 한다. 그럴 때 하나님의 대적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살육될 수 있고,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그 영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사탄과 죄와 죽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며, 건강한 몸의 생활 곧 건강한 교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— 엡 6:10-18, 시 48:12-13.

III. 이기는 이들은 육체 되신 삼일 하나님, 곧 하나님-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, 그들의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들이다. “주님께 힘을 얻고 /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. /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에 / 그들이 그곳을 샘이 되게 하니 / 이른 비가 정녕 그곳을 복으로 덮습니다. / 그들은 힘에 힘을 얻으며 나아가 /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저마다 나아옵니다.” — 시 84:5-7.

- A. 벗겨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집의 사랑스러움과 달콤함을 누리게 한다 — 시 84:1과 각주 2, 6절과 각주 1, 비교 시 73:26과 각주 1.

- B.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동안, 우리는 그 영으로 채워지며, 그 영은 우리에게 샘과 이른 비가 되신다. 시온을 향한 대로는 두 단이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를 상징한다. 이 두 단은 육체 되신 삼일 하나님 곧 하나님의 증가를 위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주요 완결을 상징한다 — 시 84:3-6.
- C. 시편 84편 1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거주할 때 받는 복을 계시한다. 그것은 육체 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의 해(요 1:4, 8:12)로, 하나님의 원수에 계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우리의 방패(엡 6:11-17)로, 우리의 누림을 위한 은혜(요 1:14, 17)로, 광채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(계 21:11, 23)으로 누리는 것이다.

IV. “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에 놓였다네. / 여호와와 ...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니” — 시 87:1-2.

- A. 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예표인 시온은 ‘거룩한 산들’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에 건축되었다. 거룩한 산들은 그 기초가 그리스도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예표한다(시 87:1). 하늘에 속한 시온은 영광스럽다는 말을 들을 것이고(3절), 이기는 이들을 위한 최종 안식처가 될 것이다(계 14:1).
- B. 시온의 문들은 드나들기 위한 것으로서 교통을 상징한다. 새 예루살렘에 열두 문이 있다는 사실은(계 21:12, 21)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교통으로 충만할 것임을 보여 준다.
- C. “시온에 관해서는 이렇게들 말하리라. / ‘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서 태어났고 / 가장 높으신 분께서 직접 시온을 세우시리라.’ / 여호와와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에 / 그 수를 세시며 말씀하시리라. / ‘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.’”(시 87:5-6) 유일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이시고 모든 성도 안에 계신 분으로서(골 3:11), 모든 성도의 총체(‘이 사람 저 사람’)이시다.
- D. “내 모든 샘들이 네 안에 있다.”(시 87:7) 이집트가 나일강을 자랑하고, 바빌론이 유프라테스강을 자랑하도록 두라. 그들에게는 샘들이 없지만, 시온 안에 있는 우리에게에는 샘들이 있다.

V.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(시 120-134편)는 성도들이 체험하고 찬송한 시온과 예루살렘의 소중함에 대해 말한다.

- A. 시편 132편에는 이기는 이들이 시온에 올라가는 것과 관련된 일곱 항목이 언급된다. 이러한 항목들은 교회생활의 정상에 있는 것들이며, 하나님의 산의 최고봉인 시온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상황을 묘사한다 — 시 132:13-18.
 1. 하나님과 함께 안식함 — “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” — 시 132:14상.
 2. 하나님과 함께 거함 — “내가 이곳을 갈망하였으니 나 여기 거하리라.” — 시 132:14하.
 3. 만족할 만한 음식 — “내가 이곳 양식에 풍성히 복을 주며 / 이곳 가난한 이들을 떡으로 만족하게 하리라.” — 시 132:15.
 4. 영광스러운 옷 — “내가 이곳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/ 이곳 신실한 이들이 환호하며 외치리라.” — 시 132:16, 비교 출 28:2.
 5. 승리의 뿔 — “여기서 내가 다윗의 뿔이 돌아나게 하리니” — 시 132:17상.
 6. 비추는 등불 — “내가 나의 기름부음 받은 이를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였노라.” — 시 132:17하.

7. 빛나는 면류관 — “그의 원수들은 내가 부끄러움으로 옷 입히겠으나 /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빛나리라.” — 시 132:18, 비교 사 62:3.

B. 시편 132편에 묘사된 것처럼 시온이 건축될 때에,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있고 하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를 갖게 된다. 이것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! — 시 133:1-3.

C. “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/ 시온으로부터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노라.”(시 134:3) 몇몇 이기는 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. 하나님은 언제나 시온으로부터, 가장 높은 봉우리로부터, 정상 곧 이기는 이들의 위치에 도달한 이들로부터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. 하나님은 이러한 위치로부터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.

VI.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는 온전하게 되고 성숙한 하나님-사람들이 시온, 이기는 이들, 교회들 안에 있는 활력 그룹들이지만,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이 될 것이며(계 21:16), 모든 믿는 이들이 이기는 이들일 것이다 — 계 21:7과 각주 1.